

해남에서 재조명 된 덕촌 양득중의 실학사상

양성현 작가 해남 인문학 강좌
“해남 조선 실학의 시작이자 중심”
“덕촌사상 좇는 마을 가치 가저”

임진왜란과 의병, 실학의 역사를 전차 해 온 양성현 작가가 지난달 30일 해남에서 덕촌 양득중(1665~1742)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육천년대(대표 양장열) 주관으로 전남도와 해남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서 양 작가는 ‘실사구시 역사마을 만들기-실학의 중심지 해남과 실사구시 재발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는 이종일 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장과 박옥임 순천대 명예교수, 이원형 전 호남대 교수(전 호남진흥원 이사), 송어지니 전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이영규 세무사, 양지훈 박사, 차 전문가 이승아 선생, 김옥기 박사, 최희순 선생, 차미정 문화활동가, 황은희 해남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해 양득중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따라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으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영조 재위 5년인 1729년이다. 당시 중부시정으로 있던 양득중이 영조에게 ‘실사구시가 진정한 격

언’이라고 건의했고, 영조는 이를 크게 찬동하며 이 네 글자를 자신의 거처에 걸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았다. (영조실록, 영조5년(1729년) 2월 6일 기사) 당시 양득중은 ‘세상을 다스리고 성리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비판’하며, 이것이 허위와 가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실사구시, 즉 ‘사실에 따라 진리를 탐구한다’는 개념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리학의 학문적 이론보다는 나라를 실제로 잘 다스리는 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퇴계 이후 성리학 외의 모든 학문이 배척되고, 오직 성리학만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주장에 맞서 성리학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성리학의 교본인 ‘주자어류’를 폐기하고, 실질적 개혁을 담고 있는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경연의 교재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했다.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년) 2월 23일 기사) 실학을 본격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논의하자는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덕촌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실학이 정치의 중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다수의 실학자들이 등장했고, 조선의 정치와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약용, 성호 이익, 유수원, 박지원 등 수많은 실학자들이 실사구



지난달 30일 해남에서 열린 덕촌 양득중(1665~1742)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인문학 강좌에서 양성현 작가가 실학의 중심지 해남과 실사구시 재발견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시와 이용후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들의 학문적, 정치적 활동은 영조와 정조 시대를 다른 왕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실학의 시대, 개혁의 시대로 만들었다.

양 작가는 “호남을 중심으로 실학의 연원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업은 학문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실학이 단순히 과거의 학문적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남이 단순한 역

사적 장소를 넘어 조선실학의 시작이면서 중심이었고 실사구시 역사마을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도 양 작가의 설명이다.

해남에서 태어난 양 작가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내일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쓰면서 임진왜란과 실학, 의병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 ‘유성룡 기축옥사’를 비롯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 ‘한양도성 가는 길’, ‘보성 義 이야기’ 등을 펴냈다.

글·사진=해남 전연수 기자

완도군, 20만보 걷기 챌린지
이달 9일부터 한달간 진행

완도군은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걸어서 가을 속으로! 20만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1일 밝혔다.

챌린지는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간 내 20만보 걷기(하루 8000보 인정)를 달성하면 된다.

20만보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보상 물품(경량 폴딩 백팩)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 설치→완도군 커뮤니티 ‘너DO 나DO 건강한 걷기 운동’ 가입→걸어서 가을 속으로! 20만보 걷기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선택 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걷기를 실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061-550-6772-3)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중년 여성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강진군보건소

강진군보건소(소장 한준호)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년여성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6주간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갱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한의약적 요령과 운동요법, 명상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체성분측정(BMI), 쿠파만(갱년기 진단) 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검사로 사업 전·후 변화 모니터링과 개별 맞춤형 건강 상담도 이뤄진다.

중년여성 한의약 건강 교실 접수는 45~65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년여성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061-430-5263)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하반기 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오는 9일까지 ‘2024년 하반기 문화교육’ 수강 5~13세 유치원·초등학생을 모집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수련관의 하반기 문화교육은 9~11월 10주 동안 발레, 점핑 트램펄린, 미술, 방송댄스, 주산·암산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문화교육의 참가비·재료비는 무료다. 단, 발레복과 주판은 수강생이 준비해야 한다.

참가 신청 등 문화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
보건소서 사전 예약 후 방문신청

해남군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장비를 무료 대여한다고 1일 밝혔다.

관내 단체나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인 심폐소생술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최대 3일까지 대여하고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가격이 비싸 일반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려운 장비이다. 장비 대여를 통해 군민의 부담은 줄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단체나 군민은 해남군 보건소 의약관리팀(061-531-4281)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속에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대여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활속에서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시행할 수 있도록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관계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헌혈 행사를 시행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하절기 헌혈 봉사활동 펼쳐

무안군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2024 하절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난달 28일 실시했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고귀한 생

명나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군민과 무안군 소속 직원 55명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명나눔 운동에 힘을 보탰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최근 혈액 수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귀한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헌혈에 동참해 주신 군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해남군,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국가 보물 지정

해남군마산면 은적사에 소장중인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이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등록되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마산면 장촌리에 소재한 은적사에 모시고 있는 철불이다. 해남에서는 유일한 철불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희귀한 철불 중 하나이다.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쥐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후반기인 9세기대의 시대양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법의의 형태나 두팔에 걸려진 옷주



림 등이 고려시대 제작된 철불과 비슷해 고려시대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 금동불에서 철불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철불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철불상은 분할조각법으로 제작되면서 발생하는 주조 흔적을 그대로 노출시켜 철불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주조흔적을 최소화하여 나타내며 조각수직으로 내려오는 옷깃을 따라 틀을 이어 붙이는 등 세심한 기술적 완성도 또한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좌상을 하고 있는 불상의 높이는 1.6m로, 하부 동체와 무릎 부분은 떨어져 나간 나무 조각으로 보수된 상태이며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86호로 관리되어오다가 지난 22일 국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해남=전연수 기자

1004 분재학교 초급과정 운영
신안군, 11월25일까지

신안군이 제4기 ‘1004섬 분재학교’ 초급과정을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총 12회에 걸쳐 48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 기수부터는 교육 대상을 신안군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모집했다. 접수 기간에는 분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몰려들어, 교육생 선발 경쟁이 뜨거웠다.

최근 분재는 젊은 층 사이에 새로운 취미생활로 부상하고 있다. 복잡한 일상 속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분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19명의 교육생은 유리온실 및 작업장에서 전문강사의 지도로 분재의 개론, 수목 병리, 수목 번식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분재 관리 및 작품 연출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